

[정규과정]

## 11가지 법칙으로 끝내는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에서 공포심을 만드는 법칙

서스펜스물, 공포물을 집필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튜터 한명섭

## 스토리텔링에서 공포심을 만드는 법칙

무더운 여름이면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위를 식히는 건 자연스런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리스틴 콘래트는 11가지 법칙으로 정리했다. [(로리 램슨 역음, 지여울 옮김, 『넷플릭스처럼 쓴다』, 다룬, 2020.)을 참고함]

### 1. 고통

고통을 견디는 일은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다. 고문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포로를 심문하기 전에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틀다고 한다. 그러면 포로는 또 다른 포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믿고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상상으로 인해 공포심에 사로잡힌 포로는 순순히 자백을 한다고 한다. 영화 <쏘우saw>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칙으로 고통을 이용하고 있다. ex) 죠스

### 2. 죽음

인간은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중 대다수는 죽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츠러든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나 윤회 사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다. 영화 <데스티네이션 Final Destination>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ex) 엑소시스트, 캐리, 죠스

### 3. 흉측한 외모

흔히 추하고 흉한 외모는 악,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관련이 있다. 마녀, 괴물, 악령은 흔히 추악한 외모로 묘사된다. 악한 존재는 선천적으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괴기스러운 가면 뒤에 모습을 숨기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플랑켄슈타인 등의 그 대표였다면 현재는 조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아닐까 한다. ex) 엑소시스트, 죠스

### 4. 복수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수를 갈망하며, 복수는 종종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는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이 끔찍한 복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공포심을 일으킨다. ex) 캐리

### 5. 악의 세력

통제 불가능한 악의 세력은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다. 악의 세력에 인물들이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며 관객을 공포로 몰아넣는 작품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ex) 엑소시스트, 캐리, 죠스

### 6. 상실

작품 속 인물은 흔히 사랑하는 존재가 살해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후 행동에 나선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마련이며, 상대와의 유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ex) 엑소시스트, 죠스

### 7. 유기 또는 고립

무시무시한 존재와 마주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보다 혼자일 때 한층 더 두렵게 느껴진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교류할 상대를 찾기 마련이다. 혼자 남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스토리텔링 속의 사악한 존재는 대개 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때 독자와 관객은 홀로 있고 싶은 욕구를 비정상적이며 섬뜩하다고 인식한다. ex) 죠스

#### 8. 미지의 존재

인간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가면과 변장을 무섭다고 느낀다. 어둠을 불안하게 여긴다. 스토리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ex) 엑소시스트, 캐리, 죠스

#### 9. 지옥

지옥은 고통을 상징한다. 또한 지극히 사악하고 강한 존재인 사탄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옥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은 영원히 쫓겨갈 처지를 치르는 장소다. 지옥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 10. 인간으로서의 한계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한다. 공포 영화와 공포 소설은 이 점을 잘 활용한다. 영화와 소설에 등장하는 무서운 존재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다. 뱀파이어와 유령, 마녀와 늑대인간 등이 그러하다. ex) 엑소시스트, 캐리, 죠스

#### 11. 인간 내면의 사악함

“피를 흘리면 성공한다.”는 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도덕규범을 따르지 않는 타인을 두려워한다. 다른 이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는 등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일을 태연히 해치우는 연쇄 살인마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 그러한 능력이 감추어져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ex) 캐리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ex) 캐리